

# 2014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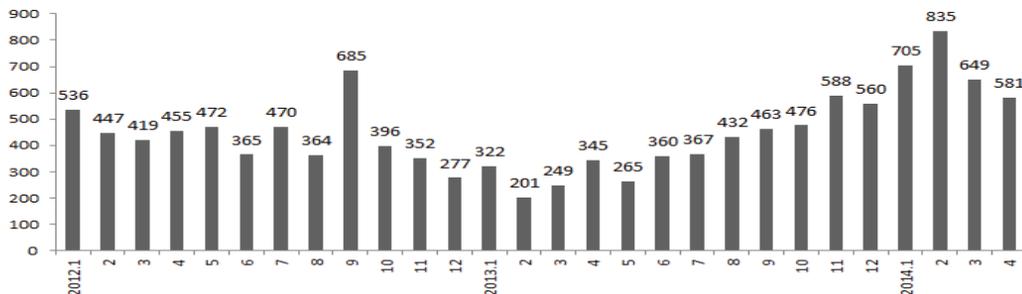
## 1 2014년 4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 2013년 4월 대비 581천 명 증가

- 1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큰 폭의 취업자 증가 지속
- 이와 같은 둔화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일부 작용(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시기임)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1,052 (1.1)	41,582 (1.3)	42,096 (1.2)	41,459 (1.2)	42,002 (1.3)	42,414 (1.0)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099 (1.4)	25,501 (1.6)	25,873 (1.5)	25,653 (1.6)	25,928 (1.1)	26,714 (3.0)
	취업자 (증가율)	24,244 (1.7)	24,681 (1.8)	25,066 (1.6)	24,758 (1.9)	25,103 (1.4)	25,684 (2.3)
	(증가수)	(415)	(436)	(386)	(455)	(345)	(581)
	(남성)	(238)	(234)	(186)	(245)	(189)	(289)
	(여성)	(177)	(203)	(200)	(210)	(156)	(292)
	참가율 (남성)	61.1 (73.1)	61.3 (73.3)	61.5 (73.2)	61.9 (73.7)	61.7 (73.5)	63.0 (74.6)
	(여성)	(49.7)	(49.9)	(50.2)	(50.5)	(50.5)	(51.9)
	고용률 (남성)	59.1 (70.5)	59.4 (70.8)	59.5 (70.8)	59.7 (71.0)	59.8 (71.0)	60.6 (71.7)
	(여성)	(48.1)	(48.4)	(48.8)	(48.9)	(49.0)	(49.9)
	실업자	855	820	807	895	825	1,030
	실업률 (남성)	3.4 (3.6)	3.2 (3.4)	3.1 (3.3)	3.5 (3.7)	3.2 (3.3)	3.9 (3.9)
	(여성)	(3.1)	(3.0)	(2.9)	(3.2)	(3.0)	(3.9)
	비경황 (증가율)	15,953 (0.7)	16,081 (0.8)	16,223 (0.9)	15,805 (0.6)	16,074 (1.7)	15,700 (-2.3)
15 ~ 64 세	참가율 (남성)	66.2 (77.4)	66.4 (77.6)	66.6 (77.6)	66.8 (77.9)	66.7 (77.6)	68.2 (79.0)
	(여성)	(54.9)	(55.2)	(55.6)	(55.6)	(55.7)	(57.4)
	고용률 (남성)	63.8 (74.5)	64.2 (74.9)	64.4 (74.9)	64.4 (75.0)	64.4 (74.9)	65.4 (75.8)
	(여성)	(53.1)	(53.5)	(53.9)	(53.7)	(53.9)	(55.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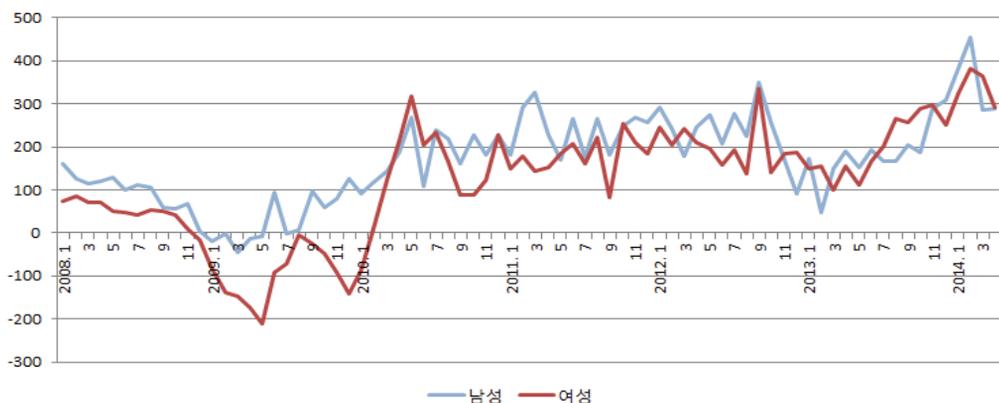
◎ 고용률 : 2013년 4월 대비 0.8%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1.0%p 상승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3년 4월 대비 20만 5천 명 증가, 실업률도 0.7%p 상승  
- 노동시장 여건 개선 반영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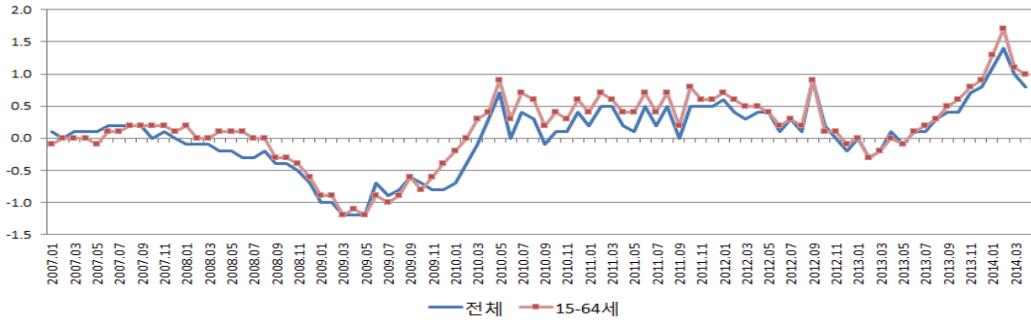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월을 저점으로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였다가 3, 4월 증가폭 다소 둔화(그림 3)
- ◎ 비경제활동인구 : 2013년 4월 대비 37만 4천 명 감소(증가율 -2.3%)
-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3월 2.5%를 정점으로 증가폭이 줄기 시작해 2014년 4월에는 -2.3% 기록(그림 4, 5)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 공공부문 취업자 수 4월 28천 명 증가, 민간부문 취업자 수 4월 553천 명 증가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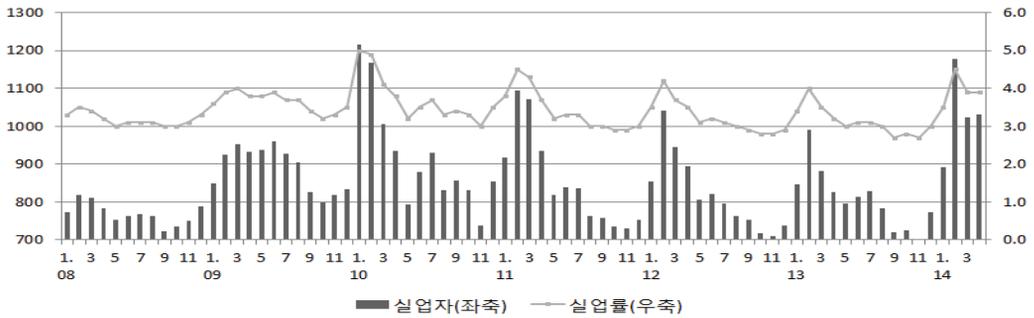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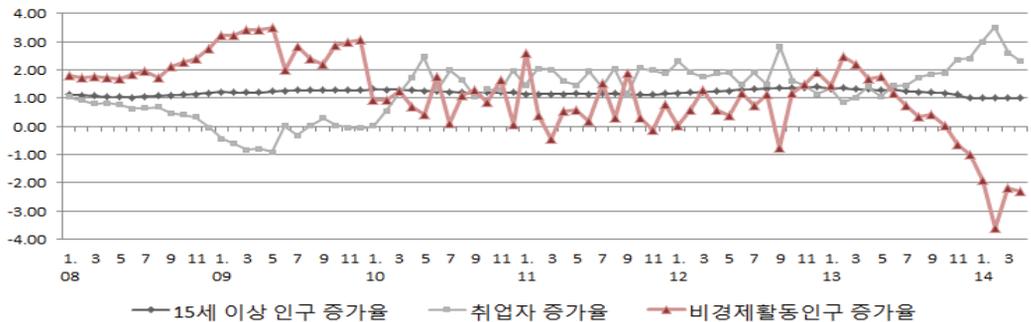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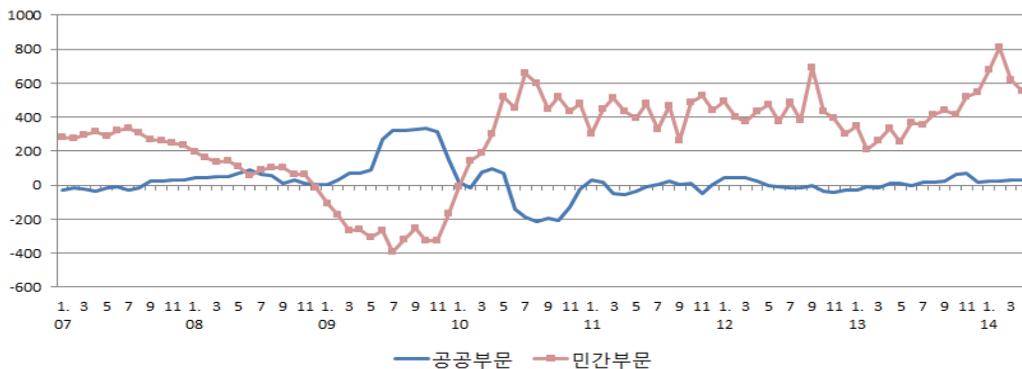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입직은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달에는 감소(특히 제조업 53천 명↓, 증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 19천 명↓ 전환 영향)

- 이직자 수 감소폭은 축소.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에서 2만 3천 명이 줄어 경기회복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 감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발적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및 가족을 이유로 한 이직도 9만 7천 명이 줄어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이 여전히 체감되지 못하는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

-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수,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수임

〈표 2〉 각 연도 4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증감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3개월 미만	3,420	3,312	3,249	3,197	3,109	182	-108	-63	-52	-87
1년 미만	2,993	2,941	2,959	2,818	2,871	212	-53	18	-141	54
1~3년 미만	3,609	3,735	3,889	3,947	4,104	59	127	154	58	156
3년 이상	6,973	7,370	7,582	8,183	8,649	187	397	212	601	467
전 체	16,994	17,357	17,679	18,145	18,734	641	364	322	465	5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4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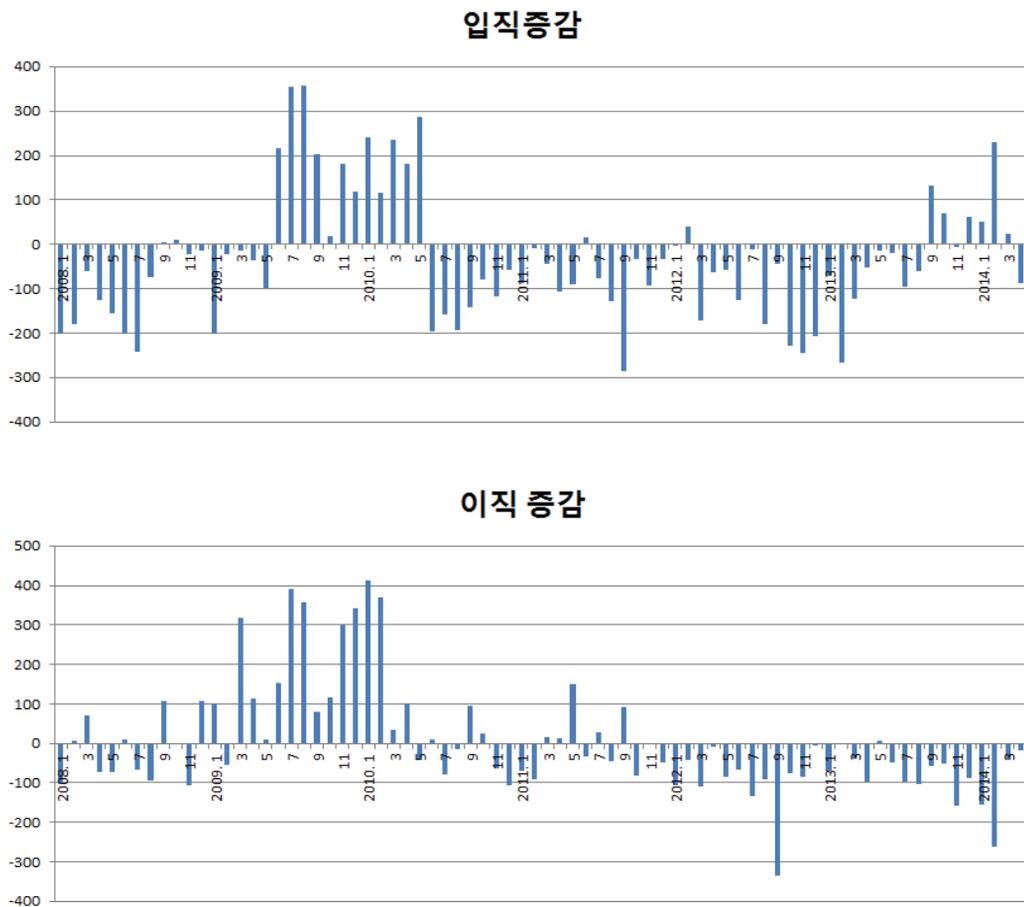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 증감	2014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559	666	703	686	639	543	-47	-97
육아	26	34	39	38	41	42	4	1
가사	22	33	26	23	26	30	3	4
심신장애	12	7	11	9	14	9	5	-4
정년퇴직, 연로	25	19	24	23	25	29	1	4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62	210	207	221	173	236	-49	63
직장의 휴업, 폐업	64	38	32	31	41	37	10	-4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87	50	40	43	52	54	9	2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14	144	132	136	146	148	10	2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207	177	159	172	130	108	-42	-23
기타	21	23	41	23	22	55	-1	33
전 체	1,300	1,401	1,414	1,405	1,308	1,289	-97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2014년 4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4년 4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더불어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94천 명 ↑) 영향
  - 3월에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22천 명 감소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479천 명(273천 명+206천 명) 증가

〈표 4〉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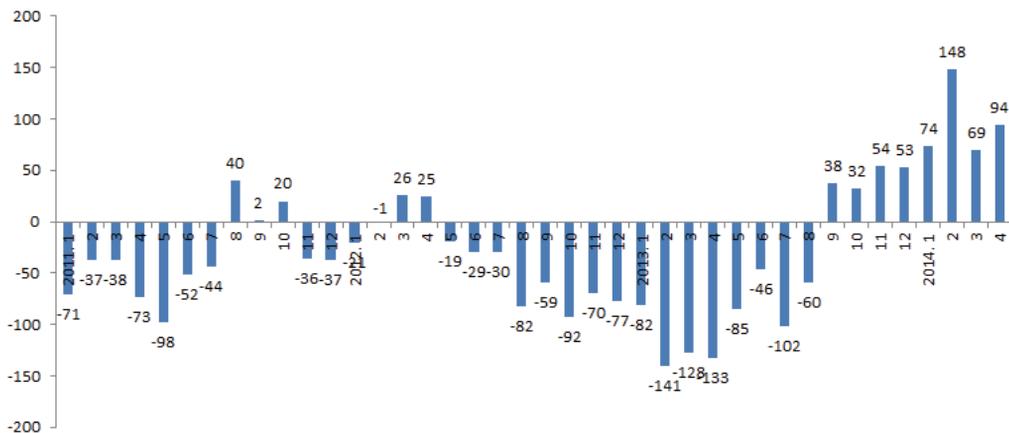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2014. 4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2012. 4	2013. 4	2014. 4
15~29세	-35	-36	-50	25	-133	94	3,818	-101	33	-34
15~19세	22	4	-7	25	-43	42	222	-50	-25	-71
20대	-58	-40	-44	0	-90	52	3,595	-52	58	37
20~24세	-11	89	29	91	5	73	1,318	119	152	95
25~29세	-47	-129	-73	-91	-95	-22	2,277	-171	-94	-58
30대	-47	-31	-21	-75	34	-59	5,710	-113	-60	-115
30~34세	44	79	57	60	104	9	2,911	37	66	-34
35~39세	-91	-110	-78	-135	-70	-68	2,799	-150	-126	-82
40대	57	11	22	2	1	68	6,710	14	37	-22
50대	291	270	254	252	264	273	5,871	322	268	215
60세 이상	149	222	181	251	179	206	3,576	385	266	368
전 체	416	437	386	455	345	581	25,684	506	544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증가
  -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2013년 4월 39.0% → 2014년 4월 40.1%)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경제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8천 명 증가

- 남성 33천 명, 여성 35천 명 증가

- 여성 40대는 임금근로자 51천 명 ↑, 이들 중 평소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 52천 명 ↑

※ 여성 40대 임금근로자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각 16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15천 명 ↑), 교육서비스업(13천 명 ↑) 등에서 증가

◎ 성별 고용률 남성 0.7%p, 여성 0.9%p 상승

- 남녀 모두 청년 고용률 상승

- 여성은 30대 후반(0.6%p ↓)을 제외한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 남성은 20대 후반(1.4%p ↓)을 제외한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

〈표 5〉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전체	전체	59.1	59.4	59.5	59.7	59.8	60.6
	15~29세	40.5	40.4	39.7	40.5	39.0	40.1
	15~19세	6.8	7.0	6.9	6.8	5.5	6.9
	20대	58.5	58.1	56.8	58.5	56.5	57.0
	20~24세	43.5	44.5	43.2	44.6	42.5	43.6
	25~29세	69.7	69.2	68.8	69.7	68.8	69.4
	30대	72.2	72.7	73.2	72.4	73.4	73.7
	30~34세	71.0	72.2	72.9	71.5	73.0	73.8
	35~39세	73.3	73.2	73.5	73.2	73.8	73.6
	40대	78.4	78.3	78.4	78.7	78.3	79.4
	50대	71.6	72.2	73.1	72.6	73.5	74.9
60세 이상	36.5	37.5	38.4	38.8	39.7	40.3	
남성	전체	70.5	70.8	70.8	71.0	71.0	71.7
	15~29세	38.8	38.7	38.1	38.4	37.6	38.0
	15~19세	5.5	5.7	5.9	5.9	5.1	6.4
	20대	58.3	57.3	55.7	56.8	55.5	54.8
	20~24세	37.2	39.1	38.2	37.0	36.2	37.4
	25~29세	71.6	70.4	69.6	70.9	70.5	69.1
	30대	89.8	90.3	90.2	90.1	90.3	90.8
	30~34세	87.9	89.0	88.4	88.9	88.6	89.5
	35~39세	91.6	91.7	92.1	91.3	92.1	92.3
	40대	91.6	91.7	92.0	92.0	91.9	93.0
	50대	85.4	86.3	86.7	86.8	87.1	88.4
60세 이상	49.3	49.9	51.0	51.1	52.4	53.0	
여성	전체	48.1	48.4	48.8	48.9	49.0	49.9
	15~29세	42.1	42.1	41.3	42.7	40.4	42.2
	15~19세	8.1	8.3	7.9	7.7	5.9	7.5
	20대	58.7	58.8	57.8	60.1	57.5	59.2
	20~24세	48.2	48.9	47.5	50.8	47.8	48.9
	25~29세	67.8	68.0	68.0	68.5	67.1	69.7
	30대	53.7	54.5	55.5	53.9	55.9	56.0
	30~34세	53.2	54.8	56.7	53.4	56.8	57.5
	35~39세	54.1	54.1	54.4	54.4	54.9	54.5
	40대	64.9	64.6	64.6	65.0	64.5	65.4
	50대	57.7	58.1	59.5	58.4	59.9	61.5
60세 이상	26.6	27.9	28.6	29.2	29.9	3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대도 경기회복으로 인해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20대 후반 남성은 이번 달 고용률 감소
  -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 추세
  - 20대 후반의 경우 여성의 상승 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월별 고용률 집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2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을 추월한 이래 이번 달에도 여성 고용률(여성 69.7%, 남성 69.1%)이 더 높게 나타남
  
- ◎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 하락은 지난달부터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한 대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해 경기 기대감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와 더 나은 일 자리를 향한 이동노력 때문에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 이직사유가 파악되는 1년 미만 이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작업여건(보수, 시간 등)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자 수가 2014년 4월 전년동기대비 19천 명 ↑
    - ※ 전문대졸을 제외한 학력층에서 감소
    - ※ 이 연령대 남성 고용률의 장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고용률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표 6〉 25~29세 성별 취업, 실업, 미취업자 비중 추이(각 연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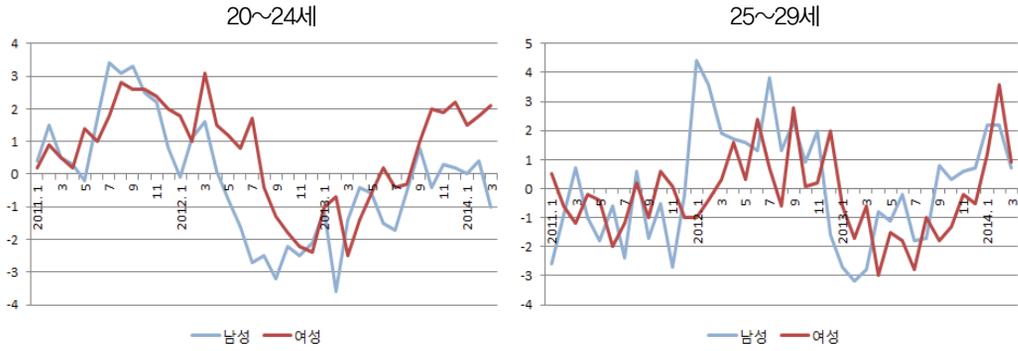
(단위 : %)

	남성				여성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2007	72.0	6.5	21.5	100.0	65.3	2.8	31.9	100.0
2008	69.9	6.8	23.3	100.0	65.9	2.9	31.2	100.0
2009	71.1	7.0	22.0	100.0	65.2	3.9	30.9	100.0
2010	70.5	7.0	22.5	100.0	66.8	4.0	29.2	100.0
2011	70.8	8.6	20.7	100.0	67.0	3.5	29.6	100.0
2012	70.9	7.4	21.7	100.0	68.5	4.0	27.5	100.0
2013	70.5	6.2	23.4	100.0	67.1	3.9	29.0	100.0
2014	69.1	9.8	21.2	100.0	69.7	4.7	25.6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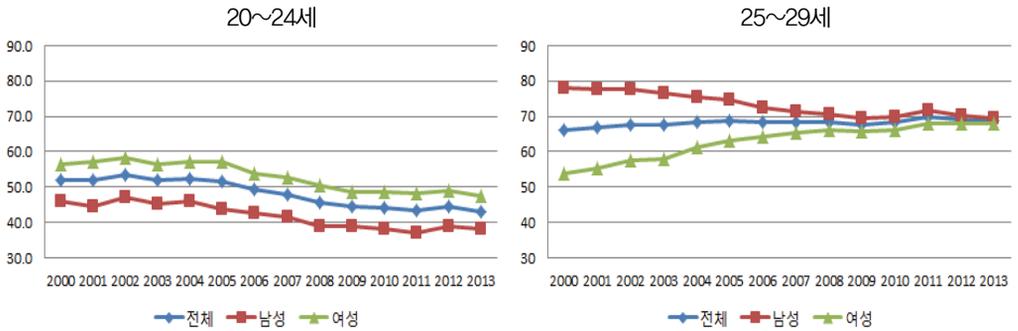
(단위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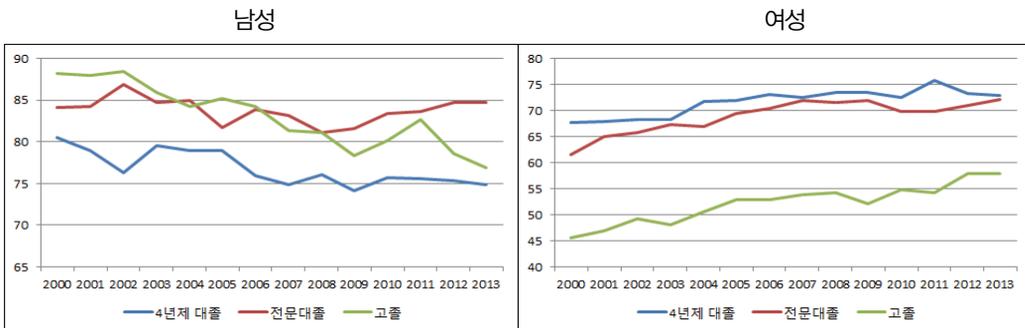
[그림 10] 연령별, 성별 20대 고용률 장기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1] 각급학교 졸업자 고용률 추이(25~2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 및 임시직 등 임금근로자의 큰 증가가 주요 요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532천 명 증가 및 임시직 154천 명 증가에 따라 589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천 명)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0천 명), 무급가족종사자(-5천 명)는 감소

〈표 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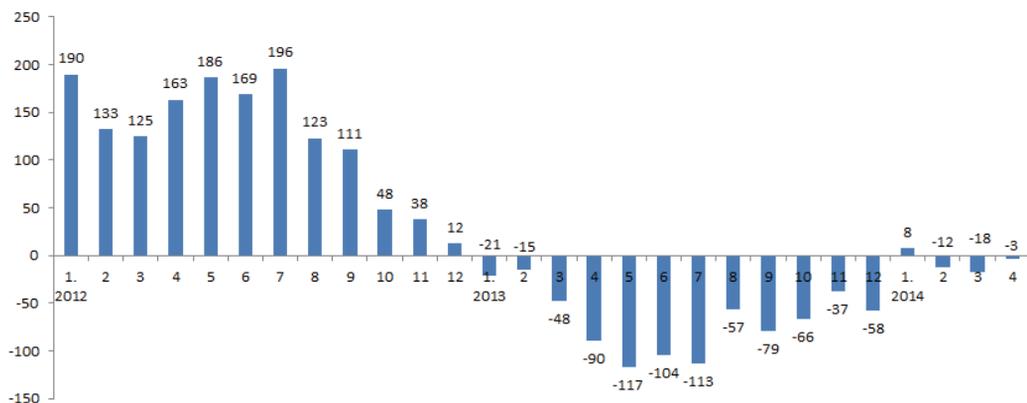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전 체	416	436	386	454	345	581
임금	427	315	483	322	466	589
상용직	575	436	615	339	659	532
임시직	-78	-2	-96	167	-202	154
일용직	-70	-120	-37	-185	9	-97
비임금	-11	121	-97	133	-120	-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99	-50	1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64	-40	-20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30	-31	-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2]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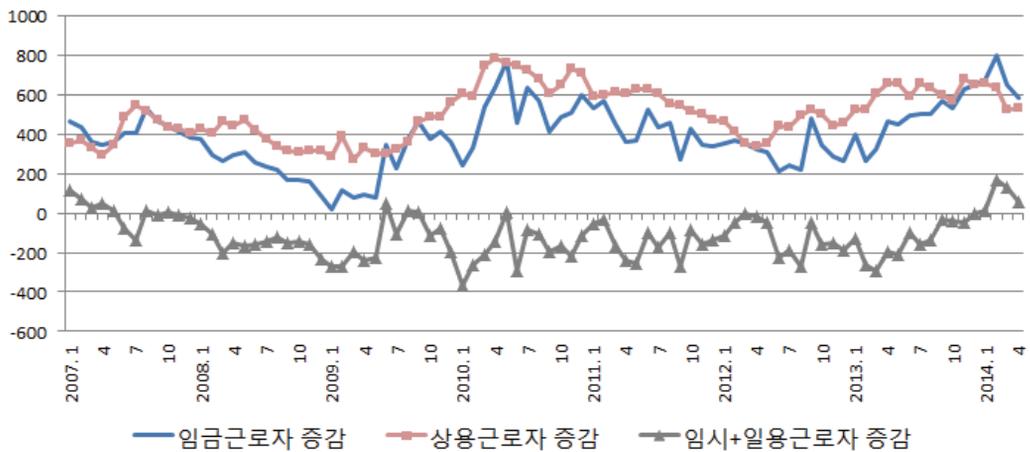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4년 2월 803천 명 증가로 정점을 찍고 다소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히 큰 증가폭 기록
  - 2013년 11월 631천 명 ↑, 12월 651천 명 ↑, 2014년 1월 675천 명 ↑, 2월 803천 명 ↑, 3월 654천 명 ↑, 4월 589천 명 ↑
  - 2013년 3월 이후 임시+일용직도 꾸준히 감소폭이 둔화되어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는데, 2014년 1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2월 169천 명 ↑, 3월에는 130천 명 ↑, 4월 57천 명 ↑으로 증가폭 다소 둔화
  - 상용직은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폭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 532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매우 높은 증가수준 유지

[그림 13]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242천 명 ↑)와 40대(124천 명 ↑)가 주도
  - 25~29세는 상용직 감소(4천 명 ↓), 고용원 없는 자영자 증가(10천 명 ↑)
    - ※ 25~29세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2013년 10월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4월 기준(26천 명 ↑) 교육서비스업(10천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천 명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4천 명 ↑) 등에서 증가  
※ 30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개월째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4월 기준 19천 명이 증가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2천 명 ↑

〈표 8〉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15~24세	상용직	0	56	39	49	30	106
	임시직	26	39	-15	77	-71	41
	일용직	-1	2	-1	-3	6	-24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0	0	3	-1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16	1	-7	-2	-10	-5
	무급가족종사자	0	-5	7	-8	7	-4
25~29세	상용직	20	-69	-26	-79	-33	-4
	임시직	-57	-47	-37	-16	-33	-25
	일용직	-15	-10	3	-2	-10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7	1	-11	13	-15	-9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6	0	-2	-9	10
	무급가족종사자	-3	2	-1	-6	4	-1
30~39세	상용직	155	90	145	18	216	8
	임시직	-90	-86	-113	-28	-134	-27
	일용직	-24	-38	-25	-40	-18	-46
	고용원 있는 자영자	-11	-10	-12	-10	-15	21
	고용원 없는 자영자	-74	20	-7	7	-5	-18
	무급가족종사자	-3	-7	-8	-22	-9	1
40~49세	상용직	221	141	190	135	189	124
	임시직	-37	-39	-28	-26	-67	31
	일용직	-53	-64	-40	-58	-55	-5
	고용원 있는 자영자	-25	5	-29	16	-16	-21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21	-53	-34	-37	-34
	무급가족종사자	-28	-11	-18	-32	-14	-28
50~59세	상용직	141	182	206	162	219	242
	임시직	67	54	17	54	32	43
	일용직	-4	-15	23	-60	56	-40
	고용원 있는 자영자	19	22	10	42	-2	21
	고용원 없는 자영자	56	36	-5	48	-24	-7
	무급가족종사자	11	-9	2	6	-17	13
60세 이상	상용직	38	37	61	53	39	55
	임시직	13	77	81	106	71	91
	일용직	27	5	3	-22	29	9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26	3	36	-2	4
	고용원 없는 자영자	47	51	44	47	45	34
	무급가족종사자	10	26	-11	31	-2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74천 명 ↑)과 도매 및 소매업(152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4천 명 ↑)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에 집중. 도매 및 소매업은 남성 96천 명 ↑, 여성 57천 명 ↑
  - 임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100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9천 명 ↑)에서 주로 증가

〈표 9〉 2014년 4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174	3,086	81.6	-33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	71	90.5	0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	69	88.4	-3	1
건설업	6	567	42.2	25	-23
도매 및 소매업	152	1,200	53.3	36	-9
운수업	32	607	78.6	-2	5
숙박 및 음식점업	25	257	20.7	100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593	89.9	-5	-1
금융 및 보험업	-21	525	64.3	0	1
부동산 및 임대업	16	195	54.7	18	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788	90.5	-3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742	66.0	-27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	759	74.0	-5	4
교육서비스업	38	967	67.0	35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4	1,197	75.8	49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	100	46.4	-22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366	45.8	47	9
기타	16	61	20.8	-55	-17
전 체	532	12,148	64.8	155	-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각 연도 4월 근속기간별·학력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 수				전기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전체	3개월 미만	651	699	664	646	40	49	-35	-18
	1년 미만	1,326	1,316	1,343	1,402	119	-10	27	59
	1~3년 미만	2,319	2,447	2,590	2,737	142	128	144	147
	3년 이상	6,322	6,495	7,019	7,363	306	173	524	344
	전체	10,618	10,957	11,616	12,148	607	339	659	532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262	296	284	279	-5	34	-12	-5
	1년 미만	587	574	597	579	28	-12	23	-18
	1~3년 미만	930	964	1,039	1,102	47	34	75	63
	3년 이상	2,413	2,481	2,625	2,738	89	68	144	113
	전체	4,192	4,315	4,545	4,698	159	123	230	153
전문 대졸 이상	3개월 미만	389	404	380	367	45	15	-24	-14
	1년 미만	739	742	745	823	91	2	4	78
	1~3년 미만	1,389	1,483	1,552	1,635	96	94	69	84
	3년 이상	3,909	4,014	4,394	4,625	217	105	380	231
	전체	6,426	6,642	7,071	7,450	448	216	429	3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비임금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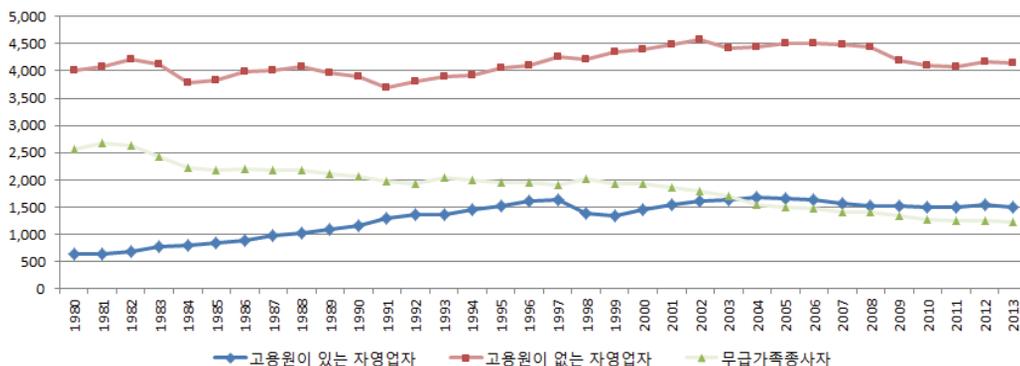
#### ◎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장기적인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40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2년에 다소 회복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 최근의 규모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고용원이 있는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14]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그 변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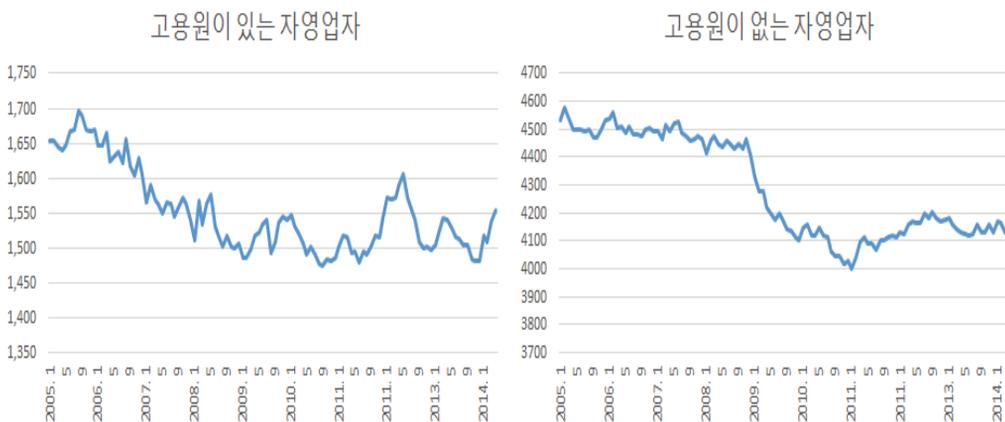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증가 추세도 보이지 않아 당분간 횡보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 15]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 ◎ 2014년 4월의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천 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천 명 ↑) 등에서 증가하였고, 부동산 및 임대업(16천 명 ↓), 제조업(14천 명 ↓) 등에서는 감소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5천 명 ↓) 등에서 감소하였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17천 명 ↑) 등에서는 증가

〈표 11〉 2014년 4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3	47	-35	921
제조업	-14	205	8	20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4	0	4
건설업	-4	166	-8	243
도매 및 소매업	6	357	-7	870
운수업	-4	32	-36	587
숙박 및 음식점업	2	299	17	27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25	10	45
금융 및 보험업	-2	8	11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26	3	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63	26	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31	11	31
교육서비스업	7	81	1	2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86	1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34	9	1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86	-45	376
기타	-	-	14	19
전 체	18	1,551	-20	4,1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4년 4월 고용성과(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581천 명 증가)는 업종별로 볼 때 서비스업의 주도와 제조업의 기여에 주로 기인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4월 현재 96천 명 증가하여 2013년 8월(5천 명 증가) 저점을 찍은 후 증가세를 유지. 1분기 평균 123천 명 증가한 것에 비해 4월 고용증가폭은 다소 둔화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년 상반기 동안에만 120천 명 증가하는 등 고용증가세 지속(2014년 1~4월 평균 116천 명 증가)
    - ※ 제조업 고용증감: 120천 명 ↑(13.1~6) → 5천 명 ↑(13.8) → 90천 명 ↑(14.1) → 135천 명 ↑(14.2) → 143천 명 ↑(14.3) → 96천 명 ↑(14.4)
  - 서비스업 고용은 2014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31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고용증가폭은 2월 이후 둔화
  - 서비스업 고용성장은 2012년 9월(466천 명 ↑) 정점에 도달한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2013년 3월(156천 명 ↑) 저점을 찍은 후 2014년 2월에는 612천 명 증가
    - ※ 서비스업 고용증감: 156천 명 ↑(13.3) → 545천 명 ↑(14.1) → 612천 명 ↑(14.2) → 531천 명 ↑(14.4)
  -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
  - 국제금융위기 이전부터 고용감소세가 지속되었던 도매 및 소매업은 2011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2년까지 이어지다가 2013년 들어 고용감소세로 바뀌었으나, 2014년 3월 현재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국제금융위기 때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12년 1월부터 증가세 유지. 2014년 4월 현재 121천 명 증가하여 최근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폭 기록. 그러나 고용증가폭은 지난달에 비해 둔화
  - 여기에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도 여

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2월 이후 고용증가폭 확대(2014년 4월 현재 140천 명 ↑)  
 - 지난해 고용감소세를 보였던 건설업은 2014년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가 4월 현재  
 고용감소로 전환(3천 명 ↓)

〈표 12〉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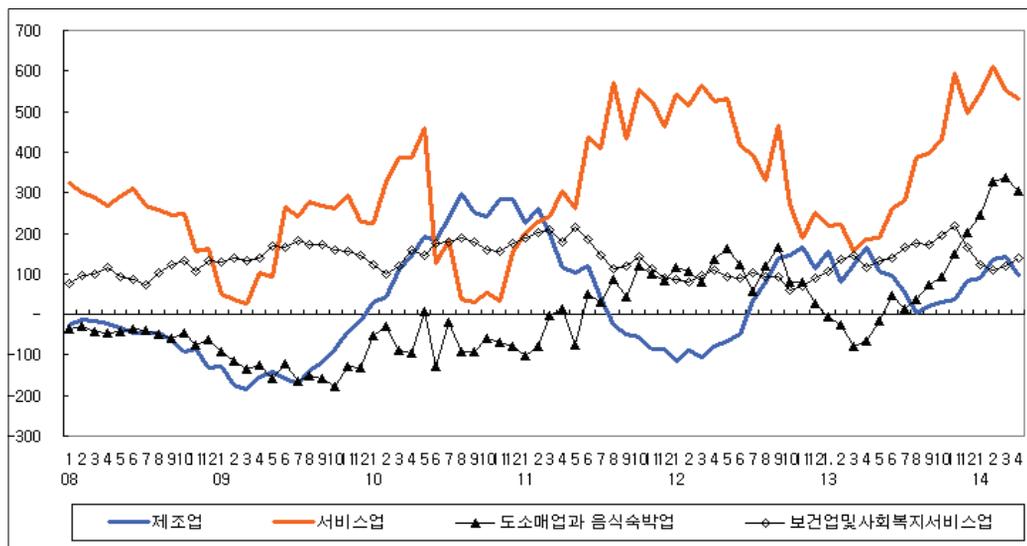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55	345	581
제조업	63	14	79	-80	165	96
서비스업	386	416	318	526	186	531
도매 및 소매업	58	51	-29	81	-105	182
숙박 및 음식점업	-36	53	64	53	38	1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	-3	-8	23	0	34
금융 및 보험업	38	-4	22	5	20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0	-1	-6	-7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67	-6	56	24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4	30	57	12	85	-18
교육서비스업	-113	58	4	84	-45	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111	114	1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7	-8	-17	7	-36	-16
건설업	-2	22	-19	53	-10	-3
농림어업	-25	-14	-8	-29	-22	-29
공공	-9	-0	14	21	12	28
민간	424	436	372	433	333	5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6]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14년 4월 현재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고용증가폭 둔화세
  - 2014년 4월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은 증가세(전년동월대비 467천 명 ↑)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2월 이후 둔화
  - 중소기업 사업체 고용은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의 고용이 활발(임시직 3개월 연속 증가세, 2014년 2~4월 평균 141천 명 ↑). 일용직 고용감소폭 확대(100천 명 ↓)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404천 명 증가에 불과해 2013년 4월에 비해 고용증가폭이 둔화. 2014년 들어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직은 30~4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 주로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둔화
  - 중소기업 사업체 임시직의 고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임시직의 신규채용은 3개월 연속 증가(전년동월대비 61천 명 ↑). 중소기업에서 임시직 신규채용은 50세 이상 중고령층(60천 명 ↑)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 20세 미만 연령층(20천 명 ↑)과 20대 후반 연령층(13천 명 ↑)에서도 활발

〈표 13〉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취업자전체	415	436	386	455	345	581
중소규모 사업체	378	381	272	432	208	467
(신규채용)	-81	-90	-43	-52	-57	-55
(신규채용 : 30~40대 연령층)	-83	-94	-59	-85	-55	-116
(신규채용 : 제조업)	-7	-19	-12	-37	35	-47
(신규채용 : 건설업)	-29	-13	22	-81	61	-25
(신규채용 : 임시직)	-81	-40	-51	67	-125	61
대규모 사업체	37	55	114	22	138	114
(신규채용)	0	-18	5	-11	4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2014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폭 소폭 둔화.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직 감소에 기인(16천 명 ↓)
- 대규모 사업체의 20대 연령층 고용은 6개월 연속 증가·확대되는 추세(33천 명 ↑, 중소기업 사업체는 18천 명 ↑). 반면 지난해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했던 30대 연령층의 고용은 감소세로 전환(10천 명 ↓), 특히 이들 연령층의 상용직 고용둔화가 2014년 들어 지속

〈표 14〉 사업체 규모별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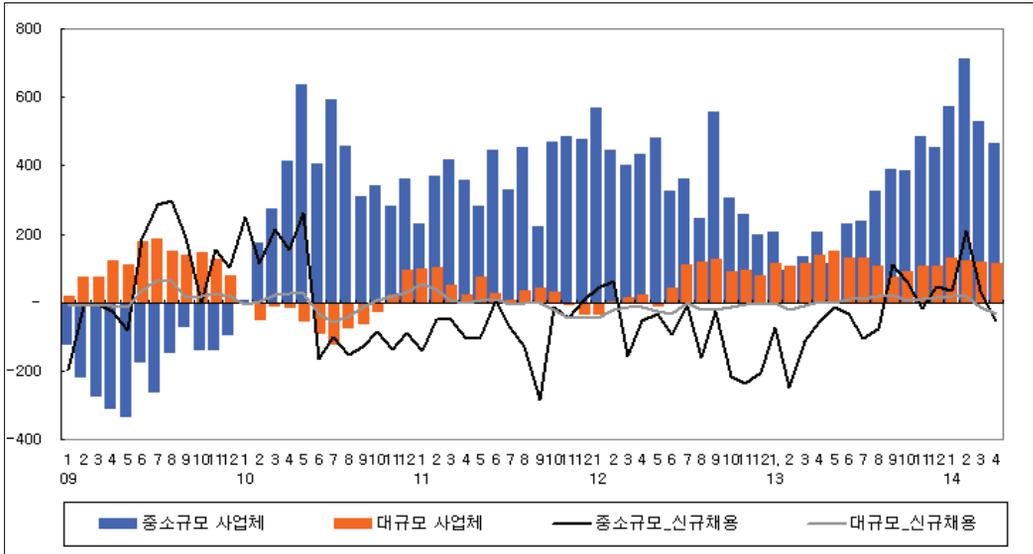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55	345	581	
중소규모 사업체	소 계	378	381	272	432	208	467	
	지위별	상용직	537	355	505	303	522	404
		임시직	-80	22	-100	177	-204	171
		일용직	-68	-117	-37	-181	10	-10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99	-50	1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64	-40	-20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30	-31	-5
	연령별	30세 미만	-60	-14	-38	47	-101	62
		50세 이상	444	464	394	488	392	417
	산업별	제조업	76	-41	39	-92	111	36
		도매 및 소매업	57	58	-29	89	-101	154
		숙박 및 음식점업	-40	54	62	60	28	116
		교육서비스업	-103	48	-10	81	-65	7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1	89	129	111	100	134
	대규모 사업체	소 계	37	55	114	22	137	114
		지위별	상용직	37	81	110	36	137
임시직			3	-24	4	-10	1	-16
연령별		20대	19	-20	-13	-18	-32	33
		30대	-6	52	76	29	121	-10
		50세 이상	-3	28	41	15	52	62
산업별		제조업	-13	55	41	12	54	60
		도매 및 소매업	1	-7	0	-8	-3	28
		숙박 및 음식점업	4	-2	2	-7	10	4
		교육서비스업	-9	9	14	3	20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1	26	-0	14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7]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신규채용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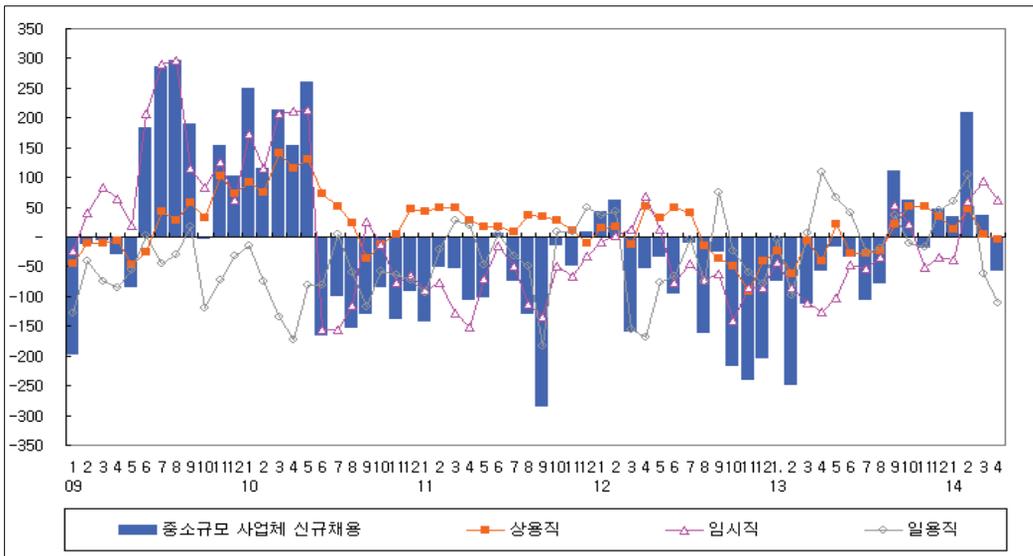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8] 중소기업 신규채용 및 종사상 지위별 신규채용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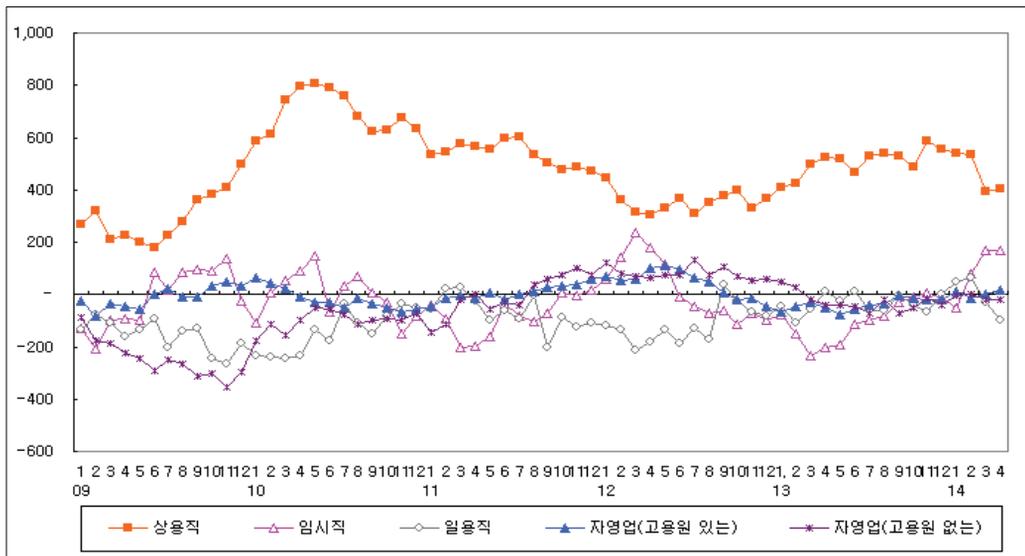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9] 중소기업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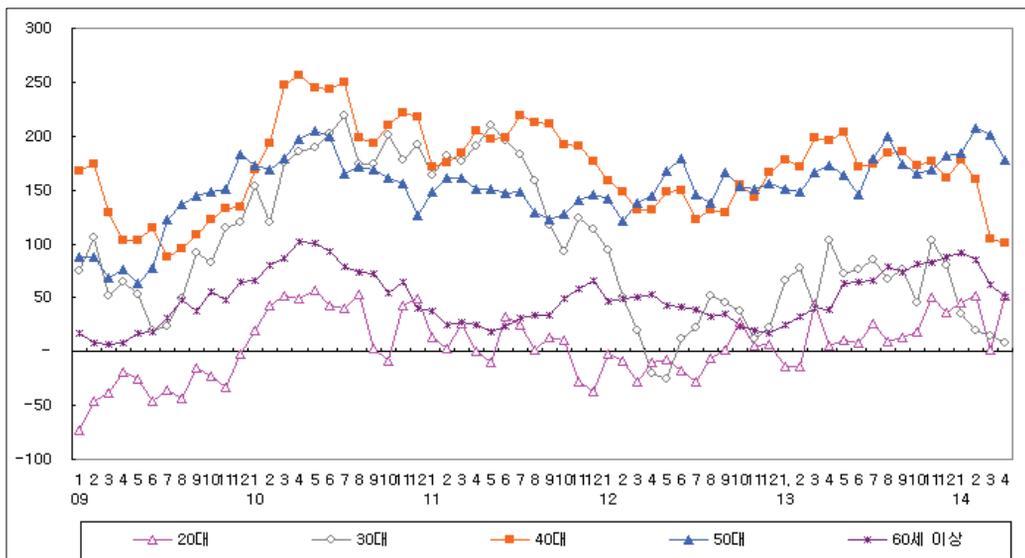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0] 중소기업 상용직의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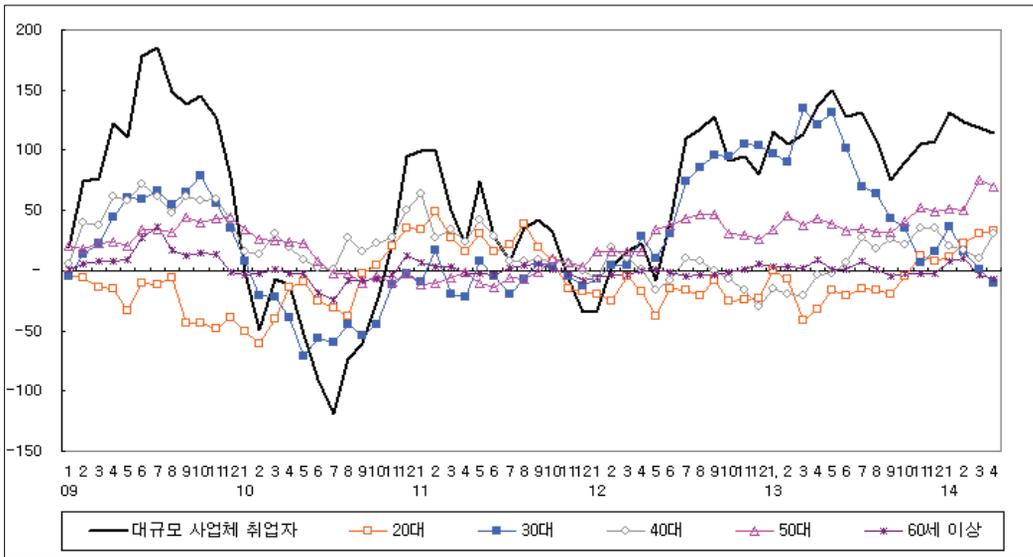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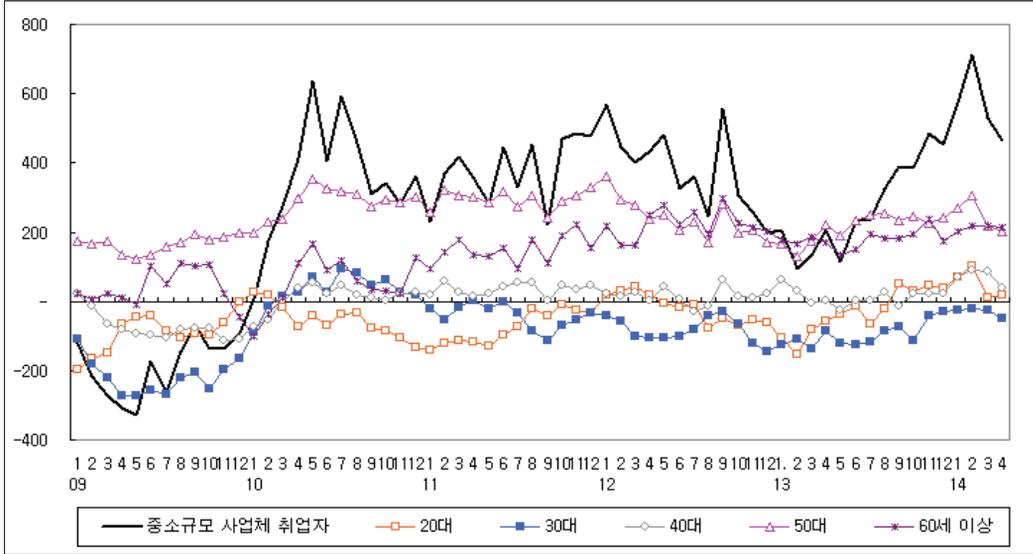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1]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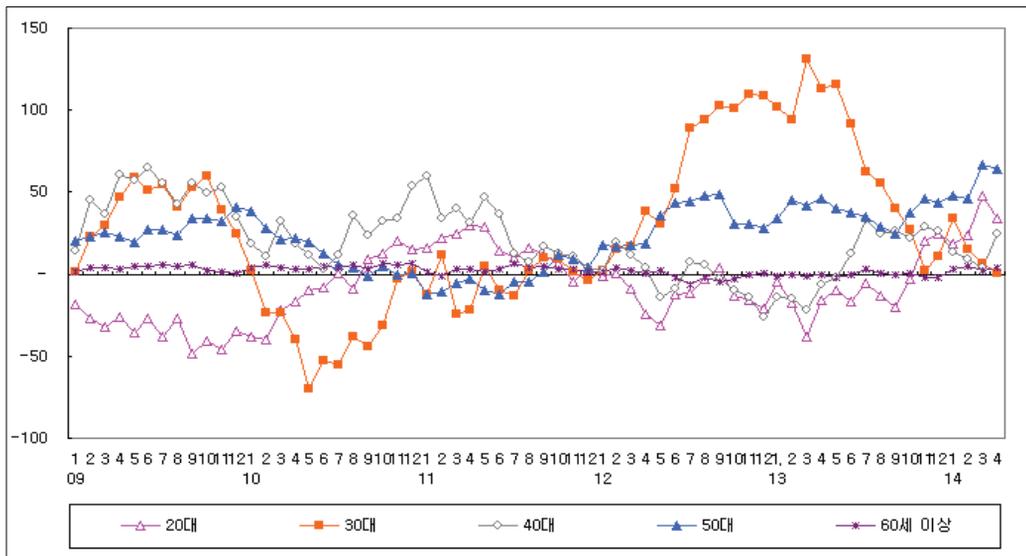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2]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의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서비스 종사자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29천 명 증가, 서비스종사자는 전년동월 대비 120천 명 증가

〈표 15〉 직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55	345	581
관리자	-47	-51	-61	-63	-72	-2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4	106	175	192	70	229
사무종사자	252	108	118	108	155	137
서비스종사자	35	77	29	25	52	120
판매종사자	-39	114	23	151	-32	1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	6	1	-7	9	-3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	29	-58	24	-53	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9	99	135	101	198	16
단순노무종사자	42	-52	23	-76	18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임시직의 신규채용은 활발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증가했다가 2010년 6월부터 감소세 지속. 그러나 2014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4월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임시직의 신규채용은 3개월 연속 증가(42천 명 ↑)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폭은 다소 둔화
  -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규채용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4월 현재 47천 명 증가에 그침. 그러나 증가세였던 50대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2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20대 연령층의 신규채용도 감소(10천 명 ↓).
  -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공공행정 등, 운수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 활발

〈표 16〉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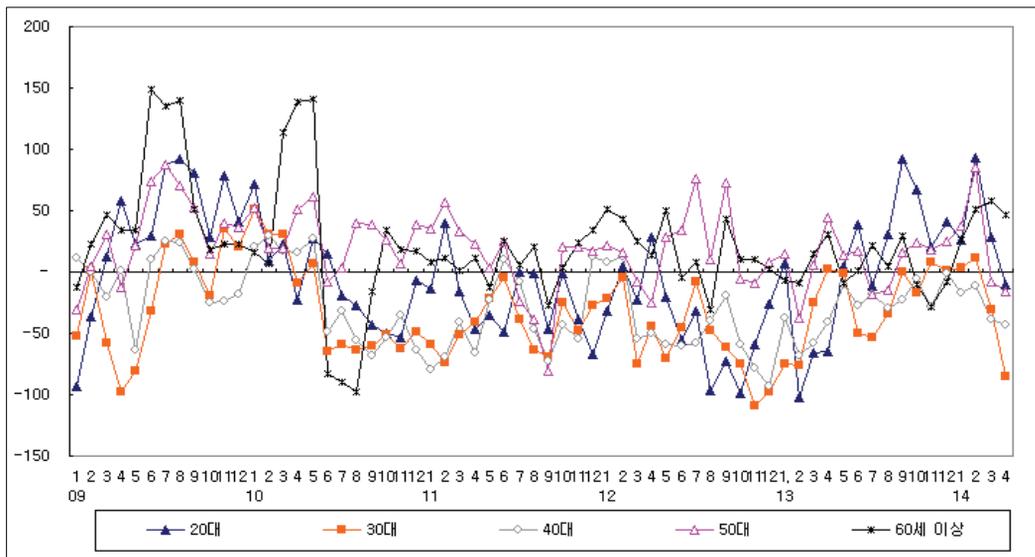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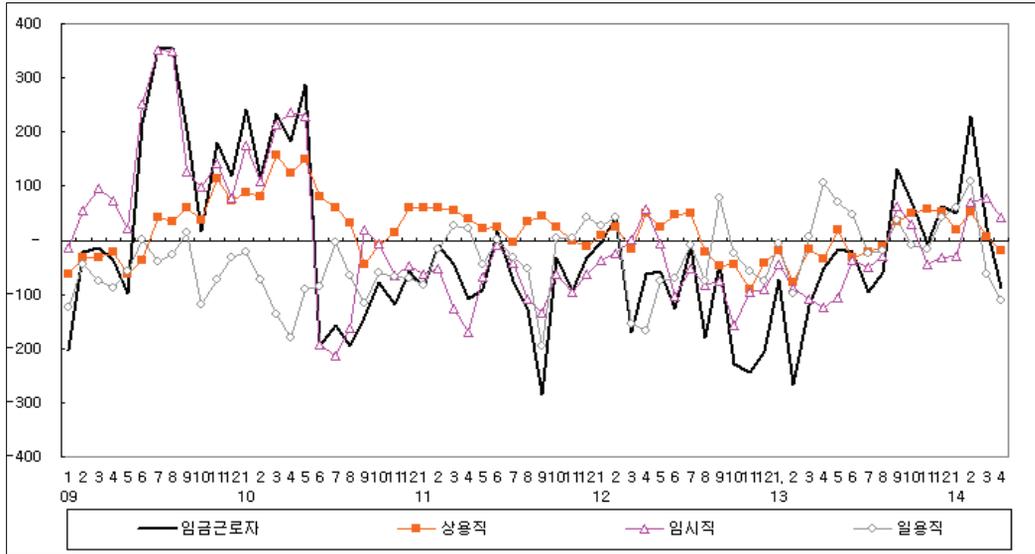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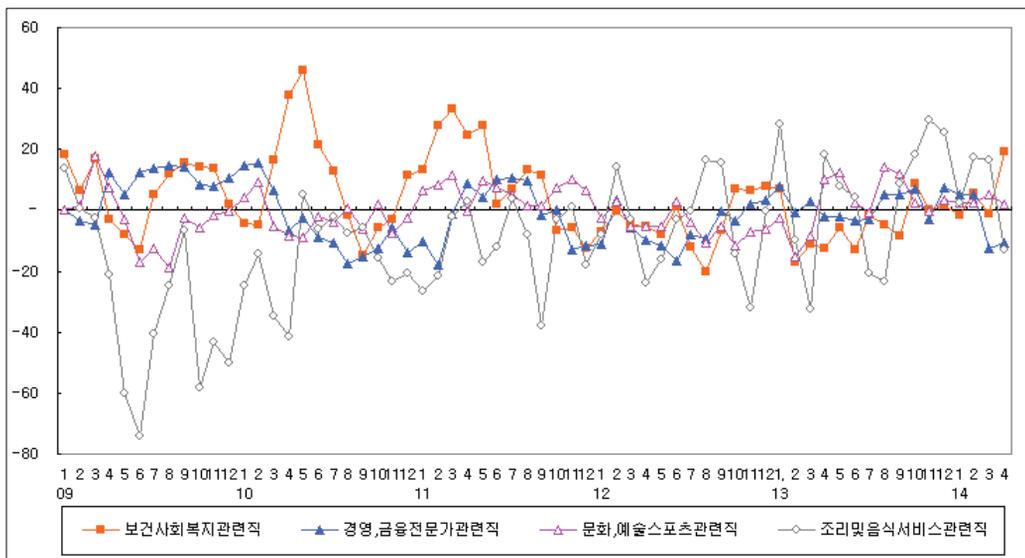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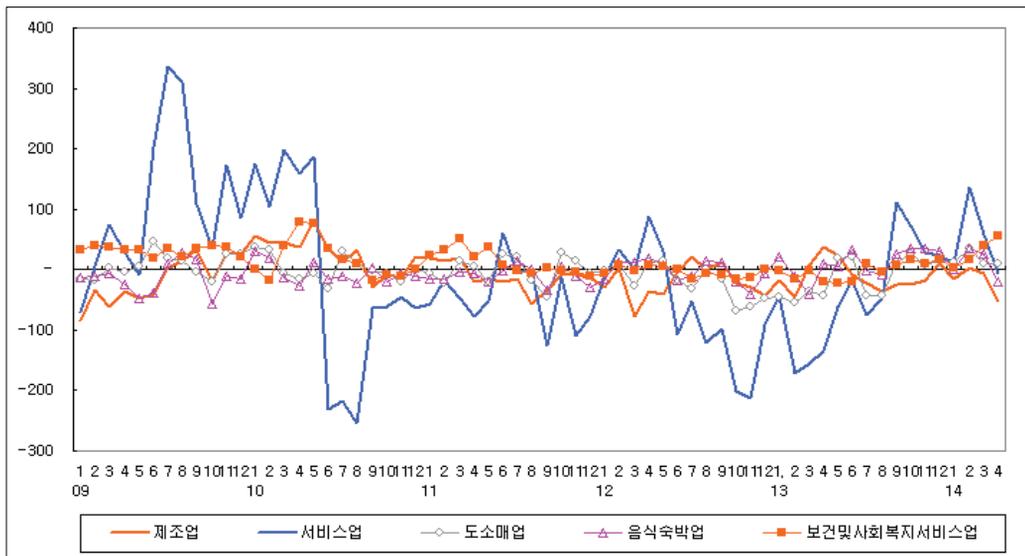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임금 근로자	전 체	426	315	483	322	466	589	
	3개월 미만	-81	-108	-37	-63	-52	-87	
	3개월~1년 미만	-48	17	-75	18	-141	54	
	1년 이상	556	406	595	366	659	623	
신규채용	전 체	-81	-108	-37	-63	-52	-87	
	지위별	상용직	29	-5	-0	49	-35	-18
		임시직	-83	-56	-48	57	-124	42
		일용직	-27	-47	11	-168	107	-111
	산업별	제조업	-11	-21	-10	-36	37	-53
		서비스업	-44	-62	-39	88	-135	-5
		도매 및 소매업	-1	-20	-14	11	-43	10
		(임시직)	-10	-12	-8	18	-30	32
		숙박 및 음식점업	-10	-3	11	20	9	-19
		(임시직)	-16	3	2	9	-18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	-4	-2	8	-19	55
		(상용직)	13	3	1	4	-5	18
	(임시직)	1	-4	-4	6	-15	39	
	건설업	-28	-12	21	-76	58	-26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81	-90	-43	-52	-57	-55
		(임시직)	-81	-40	-51	67	-125	61
		대규모	0	-18	5	-11	4	-33

주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3]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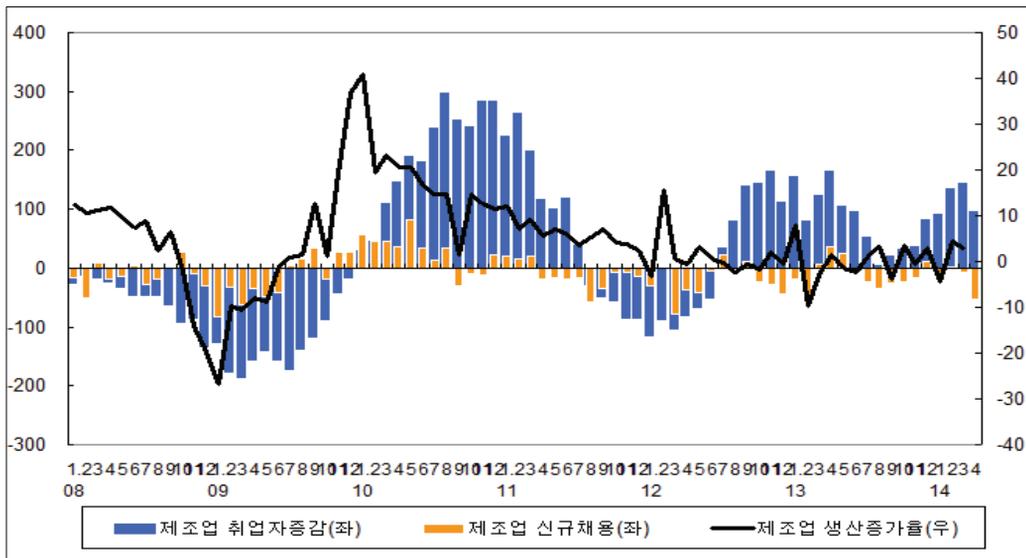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수출 증가, 고용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4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였으며, 내수, 수출 모두 각각 4.1%, 0.2% 증가
  - 제조업 고용은 2014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 증가(2014년 4월 현재 96천 명 ↑)
  -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은 2013년 0.9%로 2012년(0.3%)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2013년 9월 이후 상승세(2014년 4월 현재 2.3%)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 추세이며, 2014년 1~4월 평균 116천 명 증가(4월 현재 고용증가폭 둔화)
  - 제조업 고용은 2014년 4월 현재 96천 명 증가하면서 2013년 8월 저점(5천 명 ↑)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 고용증가폭은 둔화
  -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을 제외한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제조업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33천 명 감소
  - 2014년 4월 제조업 고용증가폭 둔화는 남성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 2013년 4월과 비교할 때 제조업 종사 남성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고용이 둔화되었으며, 상용직과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둔화
  - 전체 취업자의 50대 연령층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50대 연령층의 고용은 확대되어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
- ◎ 제조업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상용직은 1천 명 증가(지난달 20천 명 ↑)
- ◎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
  -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36천 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50대 연령층의 고용은 큰 폭으로 확대

[그림 24] 제조업 고용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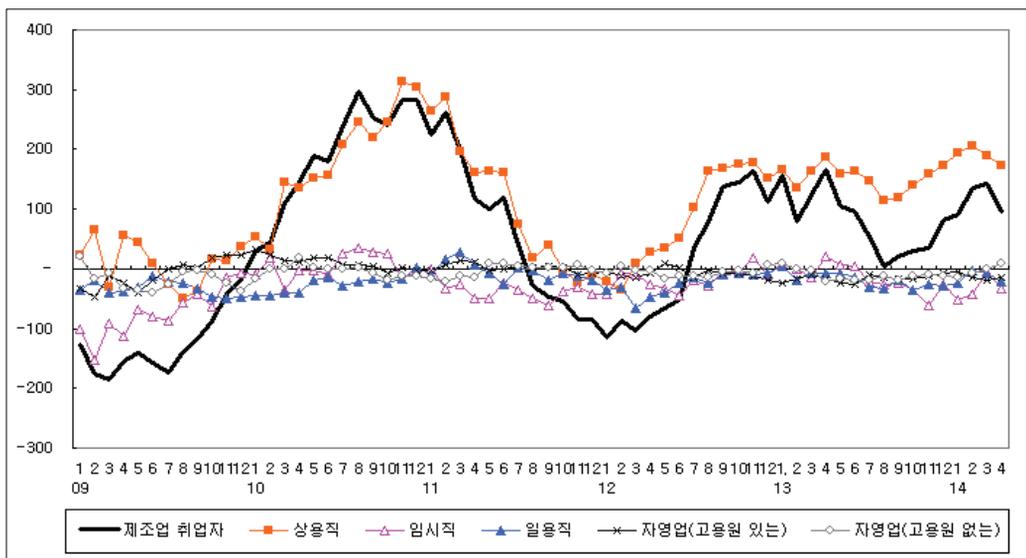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5] 제조업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7〉 제조업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제조업 취업자 전체		63	14	79	-80	165	96
지위별	상용직	110	84	152	29	186	174
	임시직	-37	-18	-14	-25	22	-33
	일용직	-4	-26	-19	-47	-7	-2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	-7	-16	-7	-16	-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6	-12	-2	-22	8
	무급가족종사자	-5	-12	-12	-27	2	-18
성별	남성	26	19	92	-43	137	72
	여성	37	-5	-12	-38	28	24
연령별	20대	-19	-25	-26	-41	9	-37
	50대	46	49	60	40	47	123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76	-41	39	-92	111	36
	(20대)	-12	-41	-18	-57	23	-45
	(50대)	49	33	43	31	22	107
	대규모	-13	55	41	12	5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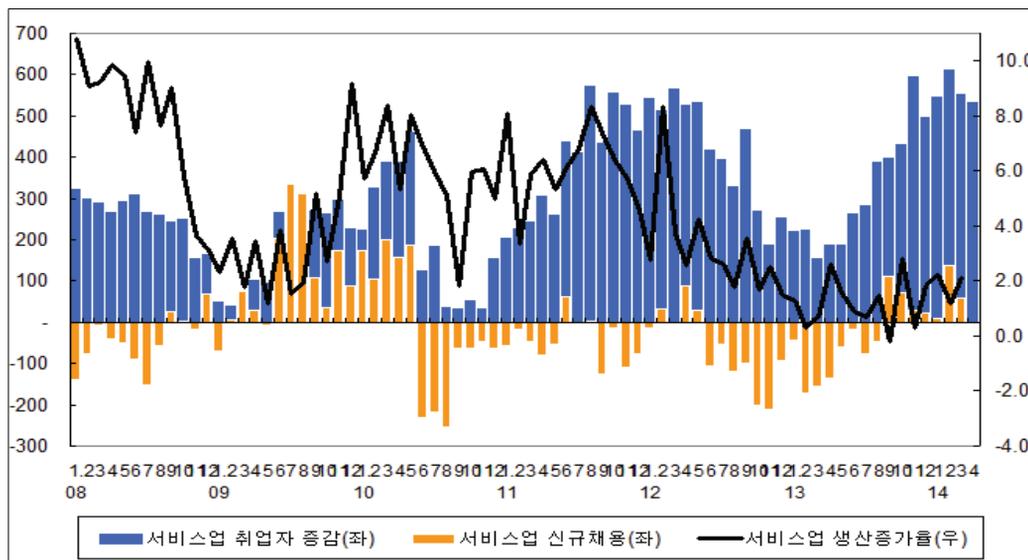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과 고용증가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4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서비스업 고용은 2014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51천 명 증가(2014년 4월 현재 531천 명 ↑)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1.9%로 2012년(2.5%)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2014년 4월 현재 3.0%

[그림 26]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4년 4월 서비스업 고용증가세는 상용직과 더불어 임시직, 자영업에 기인
  - 서비스업 상용직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반면,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173천 명 증가. 서비스업 임시직은 2012년 7월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65천 명 감소. 그러나 2013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고용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 임시직의 신규채용은 3개월 연속 증가(4월 현재 67천 명 증가로 다소 주춤). 30세 미만 연령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신규채용 활발
  - 자영업자 또한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7천 명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 부문에서 성별 고용증가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2013년에 비해, 여성 고용증가폭 둔화로 인해 격차가 거의 해소
  - 연령별로는 30대 후반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증가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학력층의 고용감소가 3개월 연속 지속·확대
  - 서비스업 고용을 세부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182명 ↑), 숙박 및 음식점업(121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40천 명 ↑), 교육서비스업(86천 명 ↑) 중심으로 고용증가

〈표 18〉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386	416	318	526	186	531
지위별	상용직	475	345	419	290	437	356
	임시직	-57	36	-65	184	-188	173
	일용직	-39	-65	-9	-67	16	-6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52	-12	100	-17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3	-4	29	-33	15
	무급가족종사자	-0	-6	-11	-11	-30	15
성별	남성	236	175	93	251	35	263
	여성	150	241	225	274	150	268
연령별	20대	-21	-22	-8	22	-80	84
	40대	56	36	95	64	41	100
	50세 이상	327	376	316	418	303	357
학력별	고졸	75	20	18	87	-91	210
	전문대졸	101	197	83	208	138	-82
	대졸 이상	232	185	287	204	203	491
산업별	도매 및 소매업	58	51	-29	81	-105	182
	운수업	52	48	34	53	45	-9
	숙박 및 음식점업	-36	53	64	53	38	1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4	30	57	12	85	-18
	공공행정 등	-9	-0	14	21	12	28
	교육서비스업	-113	58	4	84	-45	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111	114	140
	가구내 고용활동 등	3	13	5	17	6	-53
규모별	중소규모	329	417	256	515	120	471
	대규모	57	-1	62	10	66	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9〉 서비스업 임시직 고용증감 및 신규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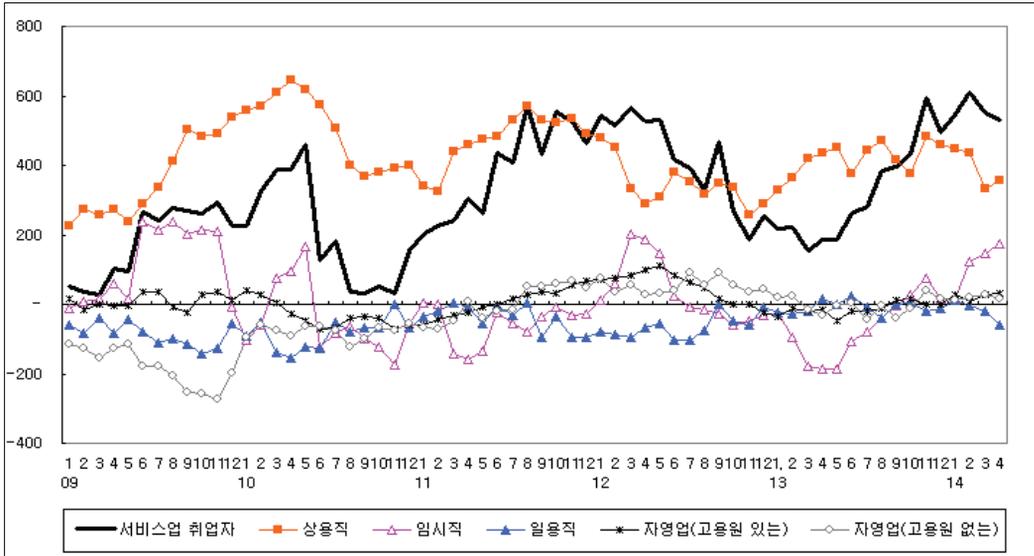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서비스업 임시직 전체		-57	36	-65	184	-188	173	
연령별	20세 미만	21	4	2	9	-33	38	
	20대	-48	4	-44	44	-69	-1	
	30대	-72	-61	-102	-3	-122	-43	
	40대	-22	-27	-7	-7	-46	58	
	50대	58	50	11	44	22	35	
	60세 이상	5	66	76	97	61	85	
성별	남성	1	12	-48	90	-82	72	
	여성	-58	24	-17	94	-106	101	
산업별	도매 및 소매업	-19	-10	-45	32	-62	36	
	숙박 및 음식점업	-58	39	36	16	7	100	
	교육서비스업	-32	9	-38	53	-73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	-16	7	9	-14	49	
	협회, 기타 개인서비스업	2	18	-12	32	-8	47	
소 계		-60	-51	-35	57	-136	67	
신규 채용	연령별	20세 미만	11	-4	5	-1	-21	23
		20대	-11	-27	-4	8	-41	16
		60세 이상	-10	6	-2	34	-1	36
	산업별	도매 및 소매업	-10	-12	-8	18	-30	32
		운수업	-3	-3	-3	4	-3	11
		숙박 및 음식점업	-16	3	2	9	-18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4	-4	6	-15	3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7]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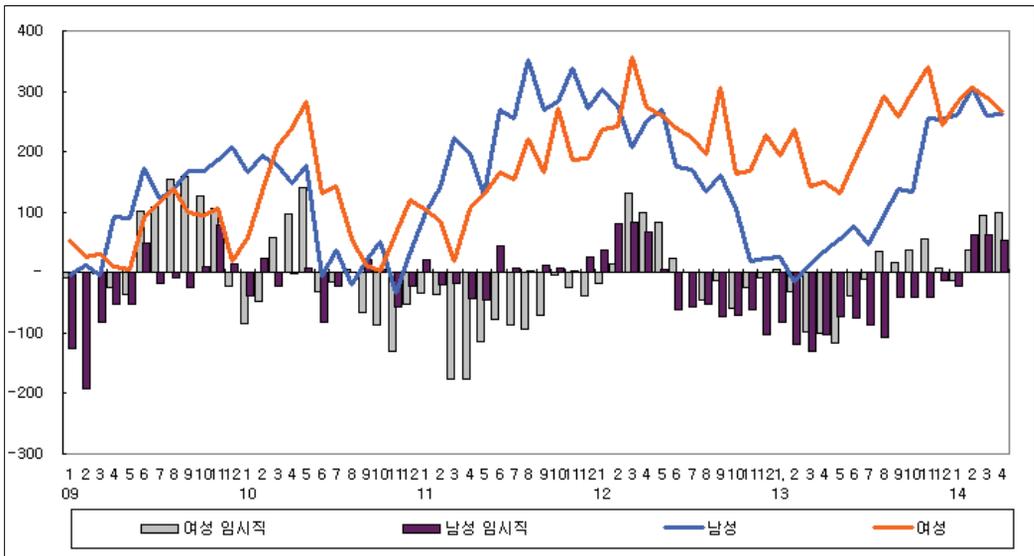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8] 서비스업 성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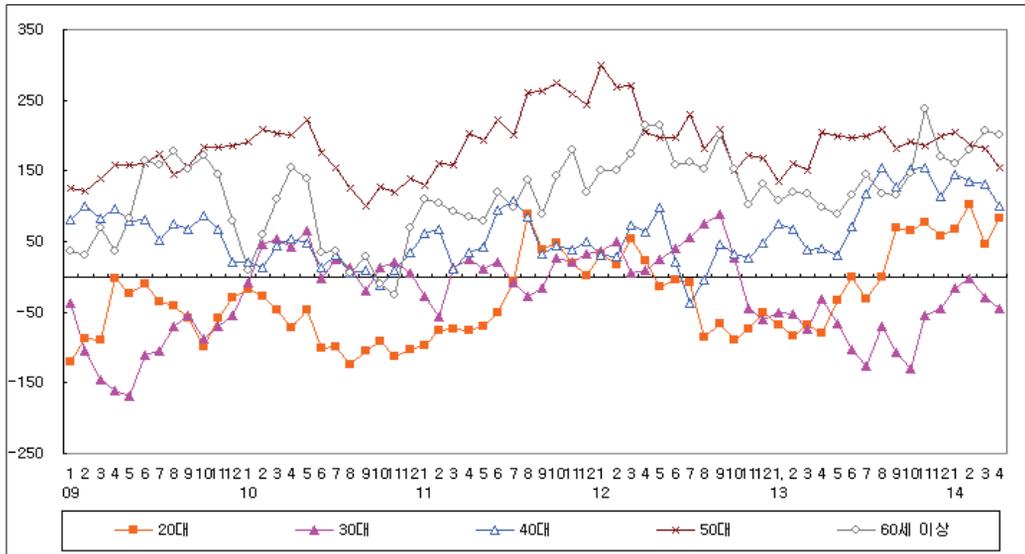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9] 서비스업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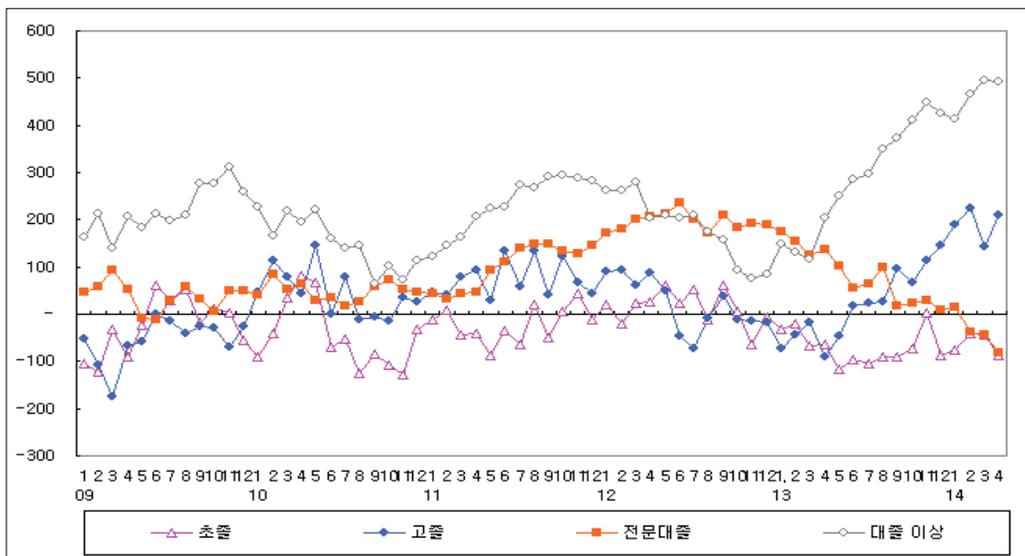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0] 서비스업 학력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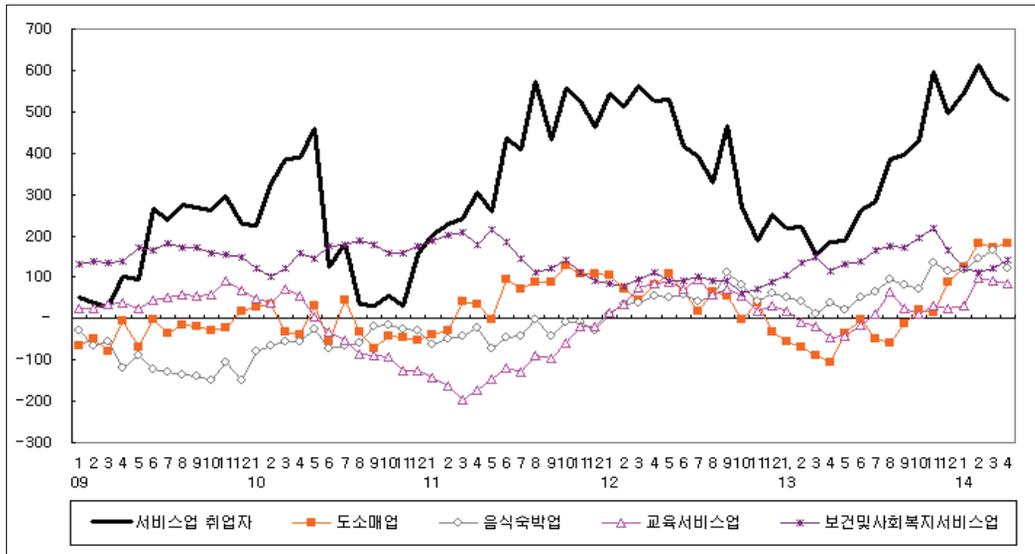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서비스업 고용을 산업별로 보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더불어 내수에 기반한 대표적인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
- 2014년 4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40천 명 증가함으로써 2013년에 이어 서비스업 고용증가세를 견인. 신규채용 또한 전년동월대비 55천 명 증가

[그림 31]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편 도소매업은 2013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10월부터 증가하여 2014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82천 명 증가. 이 산업에서 고용증가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의 고용 또한 5개월 연속 증가(임시직 신규채용 32천 명↑). 이와 더불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의 증가세 4개월 지속
- 2014년 도소매업의 고용증가세는 남성이 주도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최근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월 현재 증가폭이 다소 둔화(121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음

- 식점 및 주점업(124천 명 ↑)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시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또한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고용증가세는 남성이 주도

〈표 20〉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도매 및 소매업	전 체	58	51	-29	81	-104	182
	상용직	107	51	68	34	38	152
	임시직	-19	-10	-45	32	-62	36
	일용직	-0	-14	-13	-25	-9	-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	5	-20	35	-28	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2	23	-15	14	-25	-7
	무급가족종사자	-8	-5	-5	-10	-19	4
	여성	82	18	-46	55	-94	130
숙박 및 음식점업	전 체	-36	53	64	53	38	121
	상용직	25	5	33	-14	42	25
	임시직	-58	39	36	16	7	100
	일용직	-8	-28	13	-5	14	-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9	25	-15	44	-11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2	-5	-0	-11	17
	무급가족종사자	-2	10	2	13	-3	13
	여성	-9	28	35	31	16	10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 체	158	88	155	111	114	140
	상용직	130	112	132	113	113	84
	임시직	29	-16	7	9	-14	49
	일용직	-4	-7	0	-5	-2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	0	16	-3	17	1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	-2	-1	-2	-3	1
	무급가족종사자	3	-0	1	-2	3	-3
	여성	19	13	33	18	18	44
여성	140	75	122	93	97	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건설업 부문 : 생산과 고용증가**

- 건설업의 2014년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고, 고용 또한 4개월 연속 증가(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 2014년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던 건설업 고용은 4월 현재 3천 명 감소. 상용직과 임시직은 증가한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6천 명 ↓)

〈표 21〉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4	2013. 4	2014. 4
건설업 취업자 전체		-2	22	-19	53	-10	-3
지위별	상용직	-7	11	24	38	9	6
	임시직	20	-18	-16	3	-31	24
	일용직	-28	-12	0	-40	16	-2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	5	-15	5	-10	-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	33	-8	49	7	-8
	무급가족종사자	0	3	-4	-2	-1	1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2	18	-20	43	-10	3
	대규모	-5	4	1	10	1	-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지역별 고용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4년 4월 고용률은 제주도(66.7%), 경상북도(63.8%), 충청남도(63.6%)로 높고 부산(56.1%), 전라북도(58.2%), 대구(58.3%)가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208천 명), 서울(5,143천 명), 부산(1,658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6천 명), 울산(555천 명), 강원도(739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4년 4월 실업률은 서울(4.9%), 부산(4.5%), 인천(4.5%) 순으로 높고

전라북도(2.4%), 제주도(2.6%), 경상남도(2.7%)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광주(2.2%p), 충청북도(1.9%p), 경기도(1.5%p), 그리고 대전(1.5%p)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울산(-0.8%p), 충청남도(-0.8%p), 전라남도(-0.6%p) 순으로 나타남

〈표 22〉 지역별 고용지표(2014년 4월 기준)

(단위: %, %p, 천 명)

시도별	고용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60.6	0.8	25,684	581	63.0	1.3	3.9	0.7
서울특별시	60.4	0.9	5,143	70	63.6	1.4	4.9	0.6
부산광역시	56.1	-0.2	1,658	2	58.8	0.2	4.5	0.5
대구광역시	58.3	0.6	1,211	15	60.7	1.1	4.0	0.9
인천광역시	61.8	0.4	1,481	35	64.7	0.6	4.5	0.4
광주광역시	59.0	2.2	740	36	60.8	1.9	2.9	-0.5
대전광역시	59.0	1.5	757	24	61.4	1.9	4.0	0.7
울산광역시	58.9	-0.8	555	2	60.8	0.2	3.1	1.6
경기도	61.3	1.5	6,208	255	63.8	2.0	3.9	0.6
강원도	58.8	1.4	739	24	60.7	2.1	3.1	1.1
충청북도	62.5	1.9	818	33	64.7	3.1	3.3	1.7
충청남도	63.6	-0.8	1,176	19	65.8	-0.3	3.2	0.7
전라북도	58.2	-0.3	881	1	59.6	-0.2	2.4	0.2
전라남도	61.9	-0.6	921	-4	64.0	0.3	3.3	1.3
경상북도	63.8	1.1	1,440	35	65.6	1.4	2.9	0.4
경상남도	60.3	0.2	1,641	20	61.9	0.6	2.7	0.8
제주도	66.7	1.0	316	15	68.4	1.4	2.6	0.6

자료: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